

세션3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특별세션> 친환경 해양시대를 위한 성공 전략

이서정 | 국립해양대학교 RISE사업단장

조선해양산업은 지금,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기술개발과 생태계 재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공지능 융합 시대에 대응한 조선해양 산업의 기술혁신, 정책 방향, 글로벌 시장전략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해양 탈탄소는 규범과 시장이 동시에 밀어붙이는 전환이다. IMO 2050 넷제로와 2030·2040 중간목표, EU FuelEU Maritime 전면 시행(2025.1.1), 해운의 EU ETS 편입과 첫 할당권 반납(2025.9.30)이 현실의 규칙이 되었다.

부울경의 강점은 ‘현장’이다. 부산항은 2024년 신항에서 국내 최초 STS 메탄올 병커링(SIMOPs)을 성공시키고 2025년 LNG STS 상용 운영으로 확장했다. 정부의 14조 원 규모 부산항 대개편은 항만·연료·전력 인프라를 통합 업그레이드하여 탈탄소 운항의 실증 무대를 넓히고 있다. 울산은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주요 관문을 통과하며 계통 연계를 준비 중이고, 경남의 조선소들은 메탄올·암모니아 대응 선종과 이중연료 선박 수주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RISE사업단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현장형 인재와 표준·인증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 포럼은 ‘친환경 해양 수도’의 실체를 지역 아젠다로 확고히 하는 자리이다. 선박의 연료 전환, 항만의 병커링·OPS(육상전원), 해상풍력과 그린 연료 공급망, EU 제도 대응을 위한 데이터·검증 역량을 하나의 실행 로드맵으로 이어갈 것이다. 규제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축적해 부울경이 아시아 블루이코노미의 표준도시권으로 도약하는 데 이번 포럼이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